

창의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화 활용법

이숙영 자기계발 클리닉 대표

영화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친밀하고도 접근성이 높으며 흥미와 관심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훌륭한 매체다. 영화가 보여주는 풍부한 이야기와 다양한 사유들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 모두를 동원하게 하여 창의적 사고와 표현을 촉발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얻으며, 지식은 물론 지혜와 교양까지 얻게 된다. 이 외에도 영화는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와 이전의 삶에 대해 새롭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처럼 영화는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 가능하지만, 본 글에서는 창의성과 의사소통능력 증진과 관련한 영화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활용방법으로는 인상적인 한 장면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해보는 방법과 다양한 질문목록을 만들어 생각해 보는 방법이 있다.

먼저 영화를 보고나서 인상적인 한 장면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해보는 방법을 알아보자. 예를 들어, 영화 <세 일간>을 보면 공학 시간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What is a machine?”이라는 질문을 한다. 이에 주인공 란초는 “인간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 인간

의 노력과 시간을 덜어주는 게 기계죠”라면서 선풍기, 계산기, 펜촉, 바지의 지퍼 등을 예시로 설명한다. 하지만 교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틀에 박히고 정해진 교과서적 개념의 한 가지 답만을 원한다. 놀란 란초는 ‘왜 내가 말한 것이 틀리죠? 난 기계에 대한 정의를 말했는데……’라며 의아한 눈빛을 교수에게 보낸다. 란초는 기계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다 쉽게 표현한 것이었다. 여기서 란초의 기계에 대한 설명은 그 자체로 창의적일뿐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한 제대로 된 의사소통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활용해 본다면 어떨까.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전공분야나 일을 비전공자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1분 정도로 짧게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타인에게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표현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발상과 생각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에 창의성과 의사소통능력을 함께 증진

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을 할 때 기존의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거나 소통의 대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오던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효과적인 소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질문 목록을 만들어 활용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영화 <히든 피겨스>를 예로 설명해보자. <히든 피겨스>는 영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심지어 한 공간에서 같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된 사회상을 보여준다. 이런 세상에서 백인상사가 흑인과 백인을 구분하는 화장실을 부수는 장면은 매우 강렬하게 다가온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떠올리고 질문목록을 만들어 볼 수 있었다. “진짜 공부는 자기파괴다. 먼저 자기 지식의 경계를 허물어 버려야 한다. 그리고 무언가를 허물려면 기존의 건물(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기존의 것을 부수고 어떤 새로운 것을 지을 것인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질문도 던져볼 수 있다. 자기의 이전 생각을 파괴했던 경험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혹은 기존의 것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든지 간에 질문 목록을 만들어볼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질문의 예로는,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어떠한가? 가장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장면이나 대사는? 자신의 문제와 연관된다고 느끼는 영화의 장면은? 영화 속 인물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주인공과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는? 그들은 왜 그런 관계가 되었을까? 영화를 보고 나서 떠오르는 자신의 느낌이나 기억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스크린 속으로 들어가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가? 만약 당신이 스크린 속으로 들어가 문제

를 해결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영화감독이 되어 영화의 결말이나 인물을 수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겠는가?” 등의 질문 목록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혼자 활용해보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느낌을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든다면 그 과정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생각의 넘나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영화를 보고나서 고르게 되는 장면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외부의 정보가 처리과정에서 그대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취향, 욕망, 기질,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걸러지고 각각의 방식으로 가공되어 입력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영화를 통해 각자가 무엇을 겁내고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알 수 있다.

철학적 접근의 상담에 관심이 있는 필자가 재미있게 읽었던 『눈물 닦고 스피노자』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뭔가를 고정시키고 틀 짓는 것은 일종의 경계다. 경계는 이것이 저것과 다른 것임을 구분 짓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다른 것과 만났을 때 만들어진 접촉 경계면은 변용과 횡단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각자 어느 정도 존재의 경계를 허물면서 공통점을 찾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접촉 경계면을 전혀 열어놓지 않은 상태로 딱딱하게 굳은 채 자기 자신‘이기’를 고집하고 상대방 ‘되기’를 하지 않으면 주변의 것들과 자연스럽게 융화되지 못하고 공회전하는 상태, 그것은 변용의 능력을 상실한 신체가 나타내는 징후이다.” 영화라는 매체야말로 이러한 경계 접촉면을 자연스럽게 허물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아닐까. TTA